

# 外國語文學科 教科運營의 改善方案

呂 石 基  
(高麗大 英文學科 教授)

大學의 學部課程으로서의 語文學科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當面課題는 한둘이 아니다. 語文系敎育은 그동안의 舊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敎材에서 敎授方法에 이르기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問題는 단순히 語學實習室을 활용한다든가 時間을 많이 할당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 I

몇 해 전에 기회가 있어 우리 나라 여러 대학의 語文學系 학과의 敎科課程과 그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 본 적이 있었다. 전공별로 한두 사람씩 몇 분이 참여하여 팀을 이룬 이 작업반은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문제에 接近하여 우리 나라 대학의 語文學系 학과가 교과운영면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추려 적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또는 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느낀 바를 몇 가지 피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外國語文學科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나라에는 外國語大學이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의 어학과를 제외하고서도 英文, 獨文, 佛文, 中文, 日文, 露文, 스페인語文 등 적지 않은 숫자의 어문학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영문학과 처럼 거의 그 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학과도 있고, 근래 몇 해 사이에 獨·佛·中·日의 각 어문학과도 최소 20개 이상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양적으로 풍성하다는 인상을 주며 人文系 대학뿐 아니라 師範系 대학에도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는 하나 다 같이 설치되어 있어 그 數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이럴 경우 먼저 관심이 쏠리는 것은 大學敎員의 문제이다. 이렇게 많은 학과에 필요하고도 充分한 만큼의 敎授가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 같은 사실상의 제 1외국어뿐 아니라 여타의 제 2외국어가 교양, 일반 과정으로서 많은 需要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

자까지 충당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숫자로서만 空白를 메우는 길인데, 교양 또는 일반 어학의 경우 전임교원의 부족을 충당하게 될 外來講師를 다수 채용하는 길이 그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 방법은 젊은 예비教授人力(석사과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전임교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과 함께 교육의 質低下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학교육의 大量化에 따른 교원, 교실, 기타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이나 適正水準을 넘는 收容人員으로 해서 강의의 不實化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특히 외국어 교육의 質의 低下를 가져오는 고질적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이다.

기왕 외국어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한두 가지 더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커리큘럼의 均衡按配 원칙이, 그 취지는 좋으나 외국어 학습에는 별반 도움이 못된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일률적으로 어학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기도 하거나 非能率의인 경우가 많다. 거기에서 제 2외국어의 경우 절대 시간수의 부족으로 언제나 初級에서 끝나고 마는 것과 동시에,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中·上級반으로의 연계가 커리큘럼이나 시간표 배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제도와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같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화된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의 경우 역시 문제는 심각하다. 그 첫째로 위에 든 요인도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이념 역시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외국어 교육이 大前提임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실적이다.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일반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터에, 대학에의 현실적 요청은 해가 갈수록 實用性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어디에다 목표를 들

것인지 막연해지고 混線을 빚을 우려가 생긴다. 필자 개인의 見解는 대학의 영어교육이 학문연구와 대학인의 교양을 위한 이른바 liberal education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지나친 實用爲主의 언어습득은 그 一次의 目標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大勢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교육 자체가 그간의 濫發을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에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語學實驗室을 두고 器材를 활용한다든가 거기에 시간을 할당한다든가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의 學部課程으로서의 어문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학생의 適性與否에 관한 것이 적지 아니하게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문학을 전공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들어오게 된 곳이 어문계 학과였었다는 그러한 학생들의 의식과 현실의 乖離문제이다. 몇 해 전에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영문학과 1년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副專攻을 물어 본 일이 있었다. 그때 최소 75% 이상이 그들의 부전공으로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영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次善의 방도로 영문과를 택했고, 따라서 영어라도 잘 배워 나가면 實社會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었다.

이런 사태가 유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사회적·현실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며 굳이 分析할 필요가 없겠으나, 제일 큰 요인으로서 硬直된 大學定員(계열 또는 과별)제도와 지나친 大學選好 성향을 들 수 있겠다. 어문학과를 「非現實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固定觀念과 그런대로 매력 있는(특히 영문학과 같은 경우) 학과라고 생각하는 현실적 선택 사이의 乖離가 곧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新制大學이 전문인보다는 균형 잡히고 교양 있는 高級人力을 배출하는 제도라고 본다면 어문학과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liberal education이란 측면을 강조

한다면 비단 어문학뿐 아니라 철학, 역사 등 人文學의 바탕을, 學部課程 4년간에 어느 정도 쌓아서 사회에 나간다(또는 上級課程에 진학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현대 학문처럼 고도로 專門化·細分化되어 가는 형편 아래서 대학 4년 동안 實用性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학문에 沒入할 수 있는 기회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말은 단순한 文科教授의 辯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보다 나아졌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학생들 사이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든가 필자의 관측(다분히 希望的인 것이기는 하지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語文學科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요구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대학의 量的 膨脹에 따라 문과학생이 급격히 늘어서 학문을 媒介로 한 一體感의 성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필자가 속해 있는 영문학과 1학년 정원은 120명, 여기에 30%를 가산하면 156명에 이르기 4년 전부를 합칠 때 600명이 넘는 숫자가 된다. 이 많은 학생 가운데 Chaucer건 Shakespeare건 Milton이건 매울 생각이 없다고 하는 학생이 반도 넘게 된다면 영문학과라는 간판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더 큰 內在的 위험은 이러한 현실적 사정을 받아들여 영문학과를 아예 「영어를 주로 배우는」 외국어 실습과정으로 바꾸자는 생각에 있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걸으로 부정하면서 속으로는, 또는 潛在的으로는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학을 강습소나 연수기관으로 格下시키는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고, 대학내부나 바깥의 사회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語文系 學科가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자기반성이 있다면 그것과 이러한 자기부정적 사고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 III

그렇다면 어문계 학과가 더 능률적이고 올바른 의미에서 시대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길

은 어디에 있겠는가? 필자의 見解는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어학 학습적인 교과목(우리는 이것을 흔히 實用科目이라고 한다)과 어문학 전공 교과목의 영거주축한 共存關係를 청산하고 좀더 명확한 한계를 그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어학능력의 향상은 大前提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여타 학과의 전공학생 중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구차스럽게 영문학과면 英文學科 敎科目 안에 영어강독이니 영작문이니 영어회화니 하는 과목은 빼버리고 일반과목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외국어문학과 학생이건 타 전공 학생이건 1대 1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학점, 시간표상의)만 주면 그만이다. 과에서는 그에 相應한 학생의 능력을 요구하면 그만이다.

둘째, 외국어문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니까 해당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또 능통할 것이라는 생각이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외국어를 썩 잘은 못하더라도 외국어문학과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더구나 현재처럼 多數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현실 아래서는 불가피하게 이 逆說은 통용될 수 밖에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최소한 외국어문학 공부를 통해서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어느 만큼 알고, 나아가 그것과의 비교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문학과가 주변의 學問領域과 고립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철학, 역사는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예술학 등 인간의 意識과 行動에 관계되는 모든 학문분야와의 적극적 意思疎通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학문은 이미 孤立無援의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없거니와 문학이란 一體質의 自己의 좁은 영역을 고립해 온 一학문의 경우는 더욱 더 그 처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自意나 他意로 들어온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최소한 그들에게 문학이 「감행」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